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한국 교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주최하는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오는 9월 4일에 개강한다. 지난 1992년에 개원한 후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7학기의 신학세미나를 개최하여 목회자들에게 계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교회의 목회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역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간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국내의 석학들로 구성된 강사진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의 수고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미나에 참가하는 목회자들은 강의 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가오는 8학기에도 개인의 작은 수고가 민족 교회에 봉사하는 기회가 되며, 한국교회와 새로와 지는 일에 기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은사를 따라 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사간에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잊지 말자.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강의안 편찬, 제본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사무국	여집사님 세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1시, 옥담층	한나, 에스더 회원
짐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자 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 성도 여덟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두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자 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한나, 에스더 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자 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지하	남자, 여자성도 각 세 분

문의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 목회자 단신 - 선교여행 보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서울교회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쉬임없이 기도하면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학회를 마친 후 영국 런던을 거쳐 대서양을 건너 7일에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만나 짧은 시간이나마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로간 총장의 영접을 받고 9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의 강의를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WTS신문에 우리 서울교회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의 소식이 1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10일에는 새벽 6시에 출발하여 5시간 30분 동안의 비행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오신 우리교회 이영기 장로님 내외분을 만나 그간의 교회 소식과 지난 주의 <순례자>도 받아 보았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상호 집사님의 장모님과 김상철 집사님과노송성 집사님의 부친들께서 각각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음만 계속 나와 기도만 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 차도 있고 또 강행군을 하다보니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번 여행에 아내가 동행해 주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1일 오전부터는 그 지역 목회자를 위한 특별세미나를 인도하였고 계속해서 주일 밤까지 성회가 계속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신선함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맺어진 성도간의 우정이 얼마나 진한 것인가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형제는 18시간 또는 7시간 운전을 하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조카의 약혼 주례, 누님의 60회 생신 등 오랫동안 가족에 대한 밀린 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18일 오후, 예정대로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일곱 분의 장로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영접을 받았을 때, 그간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교회 위해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5년 8월 18일
주 안에서 이종윤 목사 드림

창세기
강해



이삭의 시련

(26장 12절 - 36절)

이 중 윤 목사

그랄 땅까지 내려간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실패를 거듭하고도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인의 땅에 머무는 이삭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다시금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12절).

하나님께서 이삭이 범죄했다고 그 자리에서 매를 드시지 않고 오히려 소산물을 풍성히 얻도록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계속하여 부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13절)

물론 이삭이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현재적인 복을 주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할 때에 복은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삭이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을 보자 블레셋 사람이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곧 생명과 같은데 그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웠고 아비멜렉이 찾아와 그 땅을 떠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멀리 떠나지 않고 그랄 골짜기 근처에 또다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결국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종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에섹(다툼)’입니다.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판다 그 우물 역시 빼앗기게 되므로 ‘잇나(대적함)’이라고 이름합니다. 세번째 판 우물은 ‘르호봇(장소가 넓음)’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22절).

세번째에 이르러서야 싸움이 그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24 - 25).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

련을 통해 이삭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진리는 빼앗긴다고 해서 낙심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듯 구원의 우물을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축복의 샘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샘물, 말씀의 샘물, 봉사와 수고의 샘물, 예배와 찬송의 샘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복을 빼앗긴다고 계속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많은 시험이 닥치고 괴로움이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닥치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인내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참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이삭은 마침내 시련을 통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라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이 그랄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브엘세바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불행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이삭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과 화평하려 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

습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비멜렉이 화평을 청해 옵니다(28 - 29절). 약속의 땅, 말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방인도 아는 것입니다.

세번째 교훈은 이삭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 죄 속에 살고 그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본문과 다소 동떨어진 것 같은 예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서의 결혼은 중혼(重婚)이었으며 형제들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을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35절).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순례자 컬럼

21세기를 열 준비를

로마시(市) 창건일을 원년으로 하여 만든 AUC(Anno Urbis Conditae)라는 월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예수 출생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왕이 AUC 750년 4월 4일 즉 주전 4년에 죽었다는 것은 일반 역사에서도 알려진 바다. 이 사실은 서력 기원이 예수 출생일로부터 시작된 것인줄 알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예수 탄생 2천년은 AD 1996년 또는 그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그 헤롯왕이 죽기 전에 출생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서력기원은 AD 525년에 교황 요한 1세가 스키티안의 수도 사인 디오니시우스에게 서방교회를 위한 표준 월력을 만들도록 요청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출생시엔 그를 박해하던 황제가 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후 4년이 지난 AUC 754년 1월 1일을 AD 원년으로 삼았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1996년을 21세기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서있는 우리는 21세기를 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95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임혜경 (대학부)

대학부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사랑'이었다. 모든 프로그램과 특강의 내용이 주제에 맞추어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한밤중의 폭우에 텐트에서 자던 형제들은 피신을 해야 했으며, 세면장이나 화장실 시설이 취약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구하나 불평없이 성령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수련회에 임하였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체험 없이 돌아갈 리가 없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만이 컸었다. 그러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클수록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셋째날 저녁, 결단의 시간에는 피곤으로 졸음이 몰려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이나 자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 내 앞에 계신 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고 대학부 형제 자매의 모습들이 하나씩 다가왔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가슴 가득히 차 올라왔다. 원을 그리며 손을 잡고 었을 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에 놀라와하며, 평소 대학부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하리만치 충만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에 대해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충명을 허락하십시오... 아멘!"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으며”

김석주 (대학부)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 속 완택산 기도원.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 사이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구름은 산봉우리에 잔잔하게 걸려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찬양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 목만 아프고 몹시 힘이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묵상하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었다.

한창 더울 때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원한 빗줄기 속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다. 주체할 수 없이 은혜가 밀려

왔다. 주님의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무력함마저 느끼며 울기만 했다.

오후에 공동체 훈련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극한 상황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는냐는 문제를 토론했다. 나는 떨렸다. 우리는 울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결단을 하게 된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를 보는 순간, 사는 것 그 어느 하나에도 감동을 느낄 수 없는 무더어진 나의 가슴에 주님의 치유와 첫사랑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수련회 참석이 불가능하였으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첫사랑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져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청년부 회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였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

13일 저녁, 교회에서 찬양예배를 드린 후 도



셋째날, 하나로 훈련에서는 각 코스별로 조원들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날 밤, 큰 원을 그리면서 사랑을 확인하며 흘린 눈물은 내게 숙제같은 것이다.

모든 순서들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애통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에 뒤따르는 주님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같지 아니한 평안을 수반한 것들이었다.



착한 강화도의 수련장은 청년부 한 회원의 집으로, 그의 부모님께서 수련회 기간동안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도록 헌신적으로 배려해 주셨다.

도착예배 시간. 아홉이 씨름했듯, 성령충만함을 간구하였다.

신학을 공부하는 형제들이 주관한 새벽기도회시간을 통해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

“영적, 지적, 심적으로 충만했던 수련회”

안미영 (청년부)

이번 수련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세상은 변하고, 고난이 예고되었음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것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가지게 된 것과 내 젊은 날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 이순환 목사님의 인도로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진 집회 시간을 통해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주 되심을 고백하였고, 주님을 따를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다짐하였다.

수련회 기간 중에 민족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날을 맞았다. 역사학 교수 이만열 전도사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을 본 문으로 한국교회의 통일운동과 회년에 관한 특강을 주셨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성해야 할 것과 사명을 깨우쳐 주셨다.

찬양, 중보기도, 애찬식, 게임, 조별공부, 간증, 성지순례를 다녀 온 한 형제의 탐방기, 갯벌에서의 시간들, 식사 전 성구 암송까지 하나 하나가 내 가슴에 깊이 각인될만한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

우리의 마지막 예배는 '폐회예배'가 아닌 '출발예배'였다. 수련회 기간동안 회개한 것, 배운 것, 결심한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씩 행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강화도의 여러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이만열 전도사님의 자상하신 설명과 함께 책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하면서 우리 것의 귀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특별히 강화 외성 복문에 이르러서는 멀리 보이는 북녘 땅을 향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위에 남과 북이 거룩한 용서, 화해, 나눔의 통일이 이루어져야겠고, 하나님께서 내신 이 민

족의 하나됨을 위해 이 땅의 젊은이로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풍성한 수련회였다.



“자, 이제부터다”

차승아 (청년부)

주님을 믿은지 1년 반, 청년부 생활 4개월이 된 내게는 이번이 처음 참석하는 수련회였다.

나는 몇가지 문제를 갖고 그것을 푸는 열쇠가 되리라고 기대하며 참석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셨다.

이순환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결한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맑은 사랑으로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회개와 감사가 터져나왔다.

이만열 전도사님께서 통일문제가 막연한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이 중요하다고 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세상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수련회를 진행하는 데에 많은 이들의 숨은 수고를 보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나는 받을 자격 이상의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과, 상

감을 드렸다. 수련회 기간 중에 같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 찬양, 대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도 감사하다.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주님과와의 관계,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내 역할, 형제·자매된 이들과의 사랑의 나눔을 체험하게 하였다. 나는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과 일상생활의 괴리감과 갈등함을 한꺼번에 채워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감격보다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이 기간이 전부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답을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식적으로는 '저렇게까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받을 사람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라고 여겨져 주님과 수고하시는 이들에게 마음으로 무한하게

8월 새가족 환영회

27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8월에 등록한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 좌석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목회자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오는 24일(목)에 햇불선교센터에서 열리는 『126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통일>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I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2.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3.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